



코스피 1924.96 (-15.46)	코스닥 690.57 (-0.96)
금리 (미국 3년) 0.869 (+0.013)	환율 (원-달러) 1228.00 (+4.20)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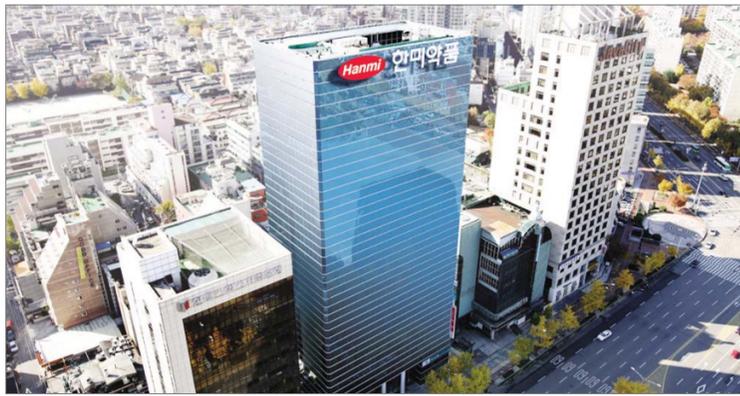


[뉴스]
가격도 반으로
반값 폴더블폰
출격 준비
02

사노피, '임상3상' 당뇨신약 일방적 계약파기 통보

다국적 제약사에 뒤통수 맞은 한미약품

사노피 '다국적사 횡포' 논란
에페글레나타이드 권리반환
한미약품 권킵프로젝트 위기



한미약품 본사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당뇨 신약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사노피의 이번 결정은 신약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3상 중에 벌어진,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안전성과는 무관한 느닷없는 통보여서 다국적사의 횡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험난한 개발 여정

1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사노피는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의향을 갑작스레 통보해왔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권리 반환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 여정은 험겨웠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사노피와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당뇨신약 3종을 포함하는 '권킵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39억 유

로, 무려 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1년 후인 2016년,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콤보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인슐린 제제의 시장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후 사노피는 나머지 2종 당뇨신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올해 초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3을 위한 총 4943명의 환자를 모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피의 이번 권리 반환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어서 한미약품은 여전히 당황한 상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는 지난해 9월 최고경영자(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에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지난 4월 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국적사의 지나친 횡포

계약업체는 2주만에 갑작스레 바뀐 사노피의 결정을 두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다국적사의 횡포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노바티스 신임 CEO인 폴 허드슨은 암, 혈액질환, 희귀질환, 신경계질환 등 4개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렉스콘파마슈티컬즈로부터 기술이전해 개발하던 당뇨신약 후보물질 '진퀴스타'를 반환하며, 2억 6000만달러의 중도 해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임상은 임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결과도 빠르게 나온다"라며 "사노피 입장에서는 5000억원이 넘게 드는 당뇨 신약 임상3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200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빠져나오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사노피와 같은 다국적사는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전세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 치료제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사노피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위한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벗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측이 이번 결정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무관한 선택"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경쟁 약물 트루리시티의 우월성 비교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文대통령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유망 스타트업 발굴 패키지 지원 나설 것"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밝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과 맞닿아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2조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특별 저리 대출 및 특례 보증 신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융자·보증·시장 개척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2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클럽發 코로나 감염 미성년자 확진에도 "20일 등교 예정대로"

정부는 고3의 20일 등교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신학기 등교개학 준비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고3 학생의 등교수업 시작을 앞두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방식과 공간활용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했다"며 "오는 20일 고3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고3수험생과 학부모 위주로 등교수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3을 제외한 다른 학년의 등교 수업 여부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는 고3부터 학생이 교실에 많이 있을 경우, '분반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고1, 고2, 중학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등교를 하는 경우 격주로 한다는 지, 혹은 격일로 한다든지 해서 분산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ihj@

구매패턴 분석, 상품추천... e커머스 몰 AI 도입 속도

쿠팡·롯데쇼핑·이베이코리아 등 편리하고 간편한 쇼핑환경으로 초개인화된 상품 추천 등 제공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쿠팡 프레스 물류센터. /쿠방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현상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e커머스 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활발하다.

e커머스 기업들은 더 편리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초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AI 연구조직을 만드는 등 AI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고객의 주문 데이터 분석, 상품 추천, 배송, 이상거래 감지 등 서비스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술로 수년간 쌓인 계절·세일·지역 등 주문 패턴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주문량을 예측해 전국 fulfillment 센터에 상품을 구비해놓는다. 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순간, AI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출고할 지, 출고된 상품을 어떤 배송트럭에 놓을지, 쿠팡카의 이동동선도 가이드해준다.

상품 추천에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객의 사용 패턴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이 깨닫기도 전에 필요한 상품을 추천한다.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에도 AI와 빅데이터가 적용됐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 등 유통 7개 계열사의 쇼핑물을 합한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을 지난달 28일 선보였는데, 다음 구매를 예측해 상품을 미리 추천해주는 AI 기능을 도입했다. 롯데온은 온·오프라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행동과 상품 속성을 4000여개로 세분화하고, 해당 고객과 비

슷한 구매패턴을 보이는 다른 고객 구매리스트까지 참조해 다음 구매 상품을 예측한다.

롯데온은 AI 전문업체인 스텔러랩스의 챗봇을 핵심엔진으로 채택, '롯데온' 앱 '살랏'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챗봇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 중인 이베이코리아는 전체 인력의 약 35%에 달하는 테크 개발 인력을 활용, AI 기술, 커머스, 물류 등을 접목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물류 센터 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AI를 활용

했다. 스마일배송 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입·출고, 재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해 물류운행을 효율화하는 물류관리시스템 WMS를 개발했으며, AI 기술을 추가 도입해 운영 효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버, 클라우드 운영, 이상거래 감지 등 다양한 영역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도 활발하다.

인터파크는 최근 AI 챗봇 '톡집사'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다. '톡집사 2.0'은 자연어 처리 기법의 텍스트 분석, 학습 자동화 등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챗봇을 구축했다. 기존 톡집사가 배송, 주문 등 정해진 키워드를 분석해 답변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톡집사는 일상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와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쇼핑몰 구축·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효율적인 상점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AI 부가 서비스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채운정 AI전문기자 echo@